

로마, 비전을 수립한다 - 열여섯 번째

최종 시험: 로마의 상징성과 예언의 삼중 적용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9-04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이 최종 논쟁에서 잘못된 편에 선 이들은, 예언의 삼중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에 의존하여, 321년과 538년의 일요일 법과 머지않아 미국에서 제정될 일요일 법이라는 세 가지 일요일 법으로 세 로마가 정의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요엘의 네 곤충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랬듯이, 그 원칙과 그들이 선택한 예언적 역사를 잘못 왜곡한다. 요엘서 처음 여섯 절에 나오는 네 세대와 그 뒤를 잇는 네 마리의 먹어치우는 곤충은, 하나님의 백성이 네 세대에 걸쳐 점차 황폐화되는 양상을 다루며, 그 황폐화가 재림주의가 로마와 배도한 개신교의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현재의 논쟁에서 일요일 법령을 이용해 세 개의 로마를 규정하려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네 가지 일요일 법령이 확인되어 있으며 321년은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538년의 일요일 법령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강제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는 진리를 외면한다. 네 가지 일요일 법령은 세 가지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지 않으며, 특히 예언의 삼중적 적용에서 세 번째 나타남이 최종 성취를 대표할 때는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은 최종적인 일요일 법령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의 각 나라가 점차 교황권의 표를 받아들이면서 일련의 일요일 법령들이 이어지기 시작함을 알린다.

2023년 7월에 깨어난 이들은 그들이 직면한 예언적 시험이 성령의 부어주심 기간에 일어나며, 그 부어주심 동안 한 부류는 "기름"을 받고 다른 부류는 "강한 미혹"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에 대한 주된 표상은 "강한 미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바로 그 장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그 장에서 사랑되거나 거부되는 진리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예언적 관계를 규정하는 진리이다.

321과 538 사이의 예언적 관계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이의 예언적 관계로 나타난다. 말세에는 321과 버가모로 대표되는 이교 로마가 미국을 상징하고, 538과 두아디라로 대표되는 교황 로마가 현대 로마를 상징한다.

321년의 첫 번째 로마는 단일 권력 국가였고, 538년의 두 번째 로마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대표하는 이중 권력이었으며 그 관계에서는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로마, 즉 현대의 로마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삼중 권력이다.

바울은 이교 로마(용)와 교황 로마(짐승)의 예언적·역사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미워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 강한 미혹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다루었으므로, 바울의 시대에 나타난 두 권세 사이의 관계는 마지막 때 현대 로마의 세 권세 사이의 관계를 대표한다. 마지막 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형성하는' 예언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강한 미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유라이어 스미스의 북방왕에 대한 사사로운 해석은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로마를 둘러싼 논쟁에서 잘못된 편에 선 부류는 원인에서 결과로 추론할 줄 모르는 자들로 특별히 지목되어 있다. 스미스는 북방왕에 대한 자신의 결함 있는 적용이 예언적 토대를 낳아,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키거나 잃느냐에 대한 경고가 있는 여섯째 재앙까지도 잘못 제시하게 만들 것임을 보지 못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곧 여섯째 재앙에서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스미스의 북방의 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은 유형과 반유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스미스는 바울의 저술에서 매우 강하게 제시된, 곧 십자가 이전의 문자적인 것이 십자가 이후의 영적인 것을 대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거나 적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 원칙을 주의 깊고 정확하게 따르면, "북방의 왕"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북방의 왕"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들 가운데 하나임이 쉽게 입증된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예언이 기초하고 있는 주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참된 "북방의 왕"이며, 사탄은 자신을 가짜 "북방의 왕"으로 나타내려 시도해 왔다.

고라 자손을 위한 노래와 시. 여호와와 크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하심의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 산은 북쪽 기슭에 있는 크신 왕의 성읍이다. 그 성의 궁전들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이심이 알려지셨다. 시편 48:1-3.

사탄이 북방의 참된 왕을 가짜로 꾸미려는 시도에는 로마의 교황을 그의 지상 대표로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이며, 로마의 교황도 그렇다. 그는 기만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탄의 대리자다.

"세속적인 이익과 영예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는 지상의 권세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구하도록 이끌렸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사탄의 대표인 로마의 주교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대논쟁, 50.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다니엘서 11장에 묘사된 역사에서 최초의 북방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는 알렉산더의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안티오코스의 아들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의 '사트라프'로 임명되었다. '사트라프'는 총독을 뜻하며,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개의 지리적 영역으로 나뉘었을 때 그중 셋을 셀레우코스가 확보하자 그는 북방 왕이 되었다.

스미스의 사적인 해석과 문법 규칙의 무시는 그로 하여금 말세에 사탄의 악의 연합을 이루는 최종 권세들이 예언에서 영적 권세가 아니라 문자적 권세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북방의 첫 왕이자 바벨론의 총독인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예언적 필연에 따라 현대의 영적 바벨론을 지배하는 권세인 최후의 영적 북방의 왕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네게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느니라. 그가 나를 영으로 데려다가 광야로 이르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짐승은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주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의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매, 내가 그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요한계시록 17:1-6.

말세에 바벨론을 지배하는 세력은 교황의 교회이며, 따라서 그 교회는 또한 영적인 북방의 왕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 17장의 그 여자(바벨론)는 “자줏빛과 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으며 ...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라”고 묘사된다. 선지자는 말한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다.” 바벨론은 더 나아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 큰 성”이라고 선언된다. 요한계시록 17:4-6, 18.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의 군주들 위에 전제적 지배를 유지해 온 세력은 로마이다. 자주와 홍색, 금과 보석과 진주는 로마의 오만한 교황권이 과시한 왕권을 능가하는 화려함과 장엄함을 생생하게 그려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한 그 교회만큼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그토록 진실하게 불릴 수 있는 다른 세력은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왕들”과의 불법적 결합의 죄로 고발된다. 유대 교회가 주에게서 떠나 이방인들과 동맹함으로써 음녀가 되었듯이, 로마도 세속 권력의 지지를 구함으로써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부패시켰고, 같은 정죄를 받는다. 위대한 논쟁, 382.

총독은 왕이며, 이사야에 따르면 왕은 곧 왕국이고 또한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부서져 다시는 민족을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이사야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예언적 시험 과정에 눈을 뜨는 예언의 학생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머리'의 예언적 상징을 인식해야 한다. 그가 필요할 때 '머리'의 상징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굳게 서지 못한다. 불신하는 자들은 굳게 서지 못하며, 그러므로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굳게 서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기름'이 있는 자들과 '기름'이 없는 자들, 바로 그 두 부류와 동일하다.

확립되어 있고 기름을 가진 한 부류는 2023년 7월에 열리기 시작한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데살로니가후서의 강한 미혹을 받는다. 그들의 시험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일과 짐승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것이 암흑시대의 교황적 짐승이든, 미국에 의해 형성되는 그 우상이든,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삼중 연합이든 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머리', 즉 삼중 연합을 구성하는 다른 두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 교황권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된다.

"머리", 곧 유다의 수도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이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는 사십일 세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열왕기상 14:21.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리스도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사탄의 모조품은 마지막 날들의 그 큰 성인 영적 바벨론을 대표하는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 성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도시와 수도를 모방하여 자신의 이름을 머리에 둔다. 그곳에 거하는 왕은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들의 어머니다. 음녀들의 어머니는 교황권이며, 그녀의 딸들은 타락한 개신교 교회들로서, 그 가운데 으뜸가는 타락한 배교 교회는 미국의 배교한 개신교도들이다.

그 배도한 개신교도들은 땅의 짐승의 개신교 별을 대표하며,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예언의 메시지를 거절한 이래로 그들의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상대인 공화주의 별은 유엔과의 관계를 통해 땅의 왕들,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삼중 연합은 그 이름이 두어진 그 머리로 대표되며, 현대의 영적 로마는 현대의 영적 바벨론이다. 그 '머리'는 교황권이다.

처음은 마지막을 대표한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을 밀러주의자들처럼 네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하든, 말세에 밝혀진 대로 여덟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하든, 첫 번째 왕국은 문자적 바벨론이었다. 밀러주의자들은 마지막이 문자적 로마라고 말할 것이다. 바빌론과 로마는 예언적 계열의 처음과 마지막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상징들이다.

마지막 때에 문자적 바벨론의 첫 번째 왕국은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왕국, 곧 현대의 영적 바벨론을 상징하며, 또한 현대의 영적 로마이기도 하다.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두 증인에 근거하여 바벨론과 로마는 상호 교환 가능한 상징이다.

교황권의 음녀가 이마에 '신비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이름이 새겨진 채로 묘사될 때, 그것은 또한 '신비의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예언적 '신비'는 그 안에 나타난 진리의 깊이를, 특히 성령의 영향 없이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심오한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적 '신비'는 또한 그 신비와 관련해 드러난 것을 시험을 통과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현대 로마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8.

"지혜"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를 깨닫는데, 그 수는 육, 육, 육이다. "죄의 사람"은 짐승의 우두머리다. 지혜는 말세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속성이며, 또한 말세에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자들의 상징이기도 하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며 악인들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는 예언적 필연성상 최종 예언적 시험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그때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존재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 육, 육"을 이해해야 한다. 지혜를 가진 마음은 말세에 관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에 의해 또한 언급된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무너졌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만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한때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이지만 일곱에 속해 있으며, 멸망으로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17:9-11.

숫자 "육, 육, 육"을 이해하는 지혜를 지닌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슬기로운 처녀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16.

슬기로운 처녀들의 부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리석고 악한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의 마음을 품는다.

도덕적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이 비칠 때가 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같은 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Review and Herald, 1897년 7월 13일.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은 비유의 처녀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이며,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뜻을 복종시켜 그리스도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 안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련한 처녀들은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식별하는 시험 문제에서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북방의 왕이며 현대 로마의 수장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표현된 시험의 때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겪는다. 그들의 혼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현대 로마의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미혹을 받아 짐승과 같은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동일한 교황주의적 사상을 옹호하고,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다.

이 카테고리의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이어가겠습니다.